

아이누 신화와 지속가능성 패러다임*

김석희**

| 목 차 |

I. 서론	IV. 아이누 신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II. 선주민의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	V. 아이누의 일상에서 떨어진 전통
III. 전통적 지식과 아이누 신화의 세계관	VI. 결론을 대신하여: 아이누의 전통지식과 세계관, 지속가능성과 과제

| 논문요약 |

UN이 제시한 ‘지속가능성’과 아이누 신화의 세계관은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 구전되어 온 아이누 신화 속에서 ‘빈곤의 종식’, ‘기아의 종식’, ‘깨끗한 물과 환경’, ‘기후 행동’, ‘정의’, ‘평화’, ‘문화다양성’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제시된 지속가능성의 가치는 사실 아이누 민족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국가연합이 제시한 것이다. 이는 ‘선주민’에 대한 지원을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 직접적 의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 1997년, ‘동질성의 신화’라는 거대사회 담론을 무너뜨린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아이누 문화진흥법의 제정 이후, 아이누 민족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문화를 중심으로 진흥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강제 동화의 역사에 대한 사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권리가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 정책은 현실적으로 아이누의 문화를 ‘전통’으로 묶어 둔 데서 출발한다. 자연과 함께 살던 문화라는 기억만이 선택되고 강조되면서 아이누 문화에 담겨진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자립에 관한 문제는 시야 밖으로 물러났다. 다문화 공생이라는 논리 속에서 아이누 문화는 다양한 ‘일본 문화’의 일부로서 포섭되었다. 과거의 문화,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으나, 그 지속가능성이 포함하고 있는 정치적 문제는 반드시 본격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6588).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연구교수

▪ 주제어: 지속가능성, 아이누 신화, 선주민, 전통지식, 소수민족

I. 서론

2015년,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회원국 총회가 있었고, “우리 사는 세계 변형시키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아젠다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채택되었으며,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세계가 달성하고자 노력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설정되었다.¹⁾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란 빈곤의 종식(No Poverty), 기아의 종식 (Zero Hunger), 건강과 복지(Good Health and Well-Being), 교육의 질 (Quality Education), 성평등(Gender Equality),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 지속 가능한 에너지(Affordable and Clean Energy),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혁신과 인프라 구축(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불평등 완화(Reduced Inequalities),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기후행동(Climate Action), 해양생태계 보호(Life Below Water), 육상 생태계 보호(Life on Land),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The Goals)의 17 개 항목을 말한다. 각 항목 아래 하위 목표 169개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포용,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인간중심’의 가치 지향을 최우선시한다.²⁾

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2) 유엔개발계획(UNDP), https://www.undp.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utm_source=EN&utm_medium=GSR&utm_content=US_UNDP_PaidSearch_Brand_Eng

특히, SDGs 세부목표 17.17은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글로벌 파트너십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1992)에서 민간단체, 기업, 여성, 청소년, 농민, 지방정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선주민을 9개의 주요 그룹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와 이행체계를 담은 ‘아젠다 21(Agenda 21)’을 채택했다. 이후 2012년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서 수립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주요 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아젠다 21’은 21세기를 향한 환경보전 행동계획으로 개발 및 발전과 환경보호를 양립시키기 위하여 각국이 해야 할 과제를 명시한 것이다.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하부 실행 의제는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나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CED)’에서 채택된 ‘21세기를 향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리우 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26장은 ‘선주민과 선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식 강화’를 다루고 있다.³⁾

또한 ‘선주민의 토지는 환경적으로 불건전하거나 선주민의 관점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이라는 관

lish&utm_campaign=CENTRAL&c_src=CENTRAL&c_src2=GSR&gclid=Cj0KCQiAi9mPBhCJARIsAHchl1wNYWY-6YxQnL7vFL1q_pXOGFtWz6DNF46eDgbLHgBW9XrcIN8p92MaAoy8EALw_wcB. (2022년 1월 31일 검색)

3) 26.1. 본 장에서 “토지”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여건을 포함. 선주민과 그 공동체는 장애나 차별없이 완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해야 함. 경제, 사회, 역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선주민이 그들의 토지에서 지속가능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제약되어 왔음. 자연 환경과 지속가능 개발 그리고 선주민의 문화, 사회, 경제, 물질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선주민과 선주민 공동체의 역할을 인식, 조화, 촉진, 강화해야 할 것임.

26.2. 계획분야의 목표와 정책수단에 고유한 일부 과제들은 ILO선주민협약(ILO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No. 169)과 같은 국제적 법률장치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선주민에 관한 UN실무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일반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indigenous rights)의 초안에 반영되고 있음. 1993년의 ‘세계 선주민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World’s Indigenous People)’가 1990년 12월 18일 UN 총회 결의 45/164로 선언되었는바, 이는 국제적인 기술, 자금 협력 증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집에서 선주민의 가치, 전통적 지식 및 자원운영, 관습 등을 존중'해야 하고, '재생가능 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 직접적 의존이 선주민에게 여전히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 '전통에 기초한 지속가능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능력 구축 제고'를 권장하고 있다.⁴⁾

아이누 민족은 홋카이도와 일본 동북부, 그리고 쿠릴열도 전반에 널리 분포하여 거주하던 선주민으로 1868년 홋카이도가 일본에 강제 편입되면서 동화를 강요당하는 동시에 '구토인(旧土人)'이라 불리며 차별을 받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권리회복을 위해 일본에 저항했고 1920년대에 그 세력이 조직화되었으며 1946년에는 사단법인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가 설립되었다. 1961년 홋카이도 우타리 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74년 생활기반정비를 위한 우타리 복지대책이 실시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선주민 운동의 흐름 속에서 아이누 민족 운동 역시 활발해졌으며 1997년 아이누 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 6월 일본 국회는 기존에 '단일민족 신화'의 유지를 위해 일본에는 선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하며 아이누 민족이 일본의 선주민족임을 인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이누를 바라보는 시선도 크게 달라졌다. 1920년대에 시작하여 1950년대에 급증한 아이누 관광은 현재도 홋카이도의 주요 산업이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관광산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조아라 2001). 그것은 첫째, 관광객 수용력에 대한 문제이며, 둘째, 주민 생활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 셋째, 아이누 문화의 세속화와 왜곡,⁵⁾ 넷째, 관광을 통해 '지금도 원시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누'라는 허상과 편견이 유포되어 아이누 민족이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고에서는, 아이누 신화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에 주목하고, 동시에 일상이 아닌 선주민 문화가 과연 '지속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4)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Recognizing & Strengthening the Role of Indigenous People & Their Communities", 『Earth Summit Agenda 21』, https://www.un.org/esa/dsd/agenda21/res_agenda21_00.shtml. (2022년 1월 31일 검색)

5) 곶은 원래 신성한 신으로 조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관광상품 개발에 치중하다보니 곶의 모양을 판매하는 이른바 '가짜문화'가 만연하게 된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심지어 일본인이 아이누 복장을 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II. 선주민의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

선주민이란, 1986년 소수인종 차별 예방에 대한 유엔 소위원회의 마르티네즈-코보(Martinez-Cobo) 보고서에 따르면, “영토가 침략을 당하거나 식민지 지배를 받기 이전의 생활 모습을 일관성 있게 지켜오면서 스스로를 지금 그 땅 전체나 일부에 우세한 사회 영역과는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 및 종족”이다. 그들은 비록 소수지만, 독자적인 문화 양식과 제도, 법률 체계에 따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영토와 종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 유엔헌장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공통조항 1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지며,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적 입장을 결정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1989년 제정한 ‘원주민·부족민 협약(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이 1991년 9월 5일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협약이 견지했던 동화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인권헌장의 취지를 살려 독자적인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도록 개정한 것이다(International Labor Office 1989, 2-10).

위의 정의에 따르면, 선주민의 지식이란 어떤 문화, 혹은 사회의 현지 지식, 관습, 전통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업이나 요리, 건강관리, 토지나 환경 보존 등, 광범위한 지식체계이며 그 기저를 관통하는 가치관을 전통적 자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주민이 보유한 지식이나 자연관과 자연에 대한 과학지식은 별개의 지식체계인 것으로 생각되었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현대적 지식체계는 지구환경의 위기를 가져왔고, 전통지식과 현대과학을 통섭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사용되는 121종의 식물 처방 중 75%는 선주민의 약초 지식을 기초로 개발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인 애보리진의 경우, 메마른 대지에서 수맥을 찾는 비법이 전승되어 서구과학으로도 증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수맥을 탐지한다(鳥津里禮子 2017).

선주민의 지식, 자연관처럼 인간을 포함하는 생명체 상호관계, 생명체와 환경의 관계에 관한 누적된 지식과 실천과 신념의 총체이며 적응의 과정에서 발달하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지식은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이라 불

린다. 정량적, 분석적, 객관적, 실증적인 근대과학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다루는 이원적 세계관에 근거한다면, 이에 비해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은 정성적, 전체론적, 직관적, 주관적, 경험적이며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다룬다(Bekes 1993). 따라서 근대과학과 전통지식을 하나로 묶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밖에 없다.

아이누인들은 그들의 수렵과 채집 중심의 생활로 자연을 살아가는 민족이다. 정확히는 수렵과 채집을 주업으로 하면서 그들의 수렵을 보충할 정도의 농업과 말린 연어와 모피 생산으로 일본의 마쓰마에 번, 감차카 제도, 사할린 등을 상대로 교역을 했다. 여름에는 생선을 겨울에는 사슴고기를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누에게 기근이란 그들이 산과 강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테면, 사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기근의 신이 사슴들을 이끌고 인간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들은 신의 선물인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강을 더럽히는 것을 금했다. 강을 관리하는 일이 연어의 지속적인 생산 조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누는 연어를 80종류 이상으로 분류하여 부르는데, 그들의 생활과 연어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島津礼子 2017).

아이누 사람들은 대단히 섬세한 관찰을 토대로 많은 동식물을 분류하고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식량, 치료제, 수렵용 독초 등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어디에 무엇이 서식하는지 숙지하고 있었다. 나무껍질로 만든 의복은 용도가 다하면 산으로 가지고 가서 불에 태워 신에게 보냈다. 그들은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듯하다. 파리나 이에까지 신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을 옛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이누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신들의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신들이 인간세상에 올 때 곰이나 올빼미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그 겉모습을 버리고(죽음의 형태로) 신의 세계로 돌아간다. 유명한 이오만테 역시 그러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아이누 민족의 지식과 자연관은 그들의 구전 문예를 통해 나타난다. 연어를 함부로 잡는 사람에게 신의 벌이 내린다는 이야기나, 곰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고 신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인식은 아이누의 자연관을 보여

준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신은 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존재감을 입증한다는 신화적 세계관 속에 지속적이고도 상호의존적인 자연관이 나타난다.

Ⅲ. 전통적 지식과 아이누 신화의 세계관

전통문자를 갖지 않았던 아이누 민족은 구전으로 자신들의 서사를 후세에 전하였다. 그러나 메이지 이래 일본어 교육을 시작으로 동화 정책에 놓였던 아이누어는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게 되어, 구전문학을 펼칠 기회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가 되었다. 의식이 있을 때나 어른들의 모임에서는 모인 사람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전통민요를 즐기거나 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굳이 아이누어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이누어에 한한 것이 아니지만,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부모나 연장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적어진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스스로 기록하거나 주변의 연장자들로부터 듣고 채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채록에 협력한 연장자들도 있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화도 완전하게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 아이누어의 부흥과 계승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구전문학을 둘러싼 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일본 각지에서 아이누어나 아이누 문화를 배우는 교실이 열리고 있으며 공연도 있다. 아이누어 사전과 입문서도 발간되었으며 전통서사를 기록한 음원도 출시되었고,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되고 있다.

18세기 무렵부터 에도시대 문헌에 조금씩 아이누어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예를 들면 1792년에 쓰여진 우에하라 구마지로(上原熊次郎)의 수필집 『모시오구사(もしほ草)』에는 아이누 민족의 구전문학을 일본어로 옮긴 것이 기록되어 있다. 메이지 이후에는 아이누어 서사를 기록하고 번역을 붙이거나 이야기의 주제와 특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영국인 선교사 존 버틀러(1854-1944)는 1880년경부터 주로 홋카이도의 남서부를 중심으로 한 아이누 문화를 기록하고 몇 개의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20세가 초두에는 폴란드 출

신의 브로니스와프 피우스츠키(Bronisław Piotr Piłsudski, 1866-1918)는 주로 사할린에서 아이누어와 아이누 민속에 대해 조사하고 구전문학을 기록하고 녹음했는데, 이것이 현존하는 아이누어 음성기록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北海道博物館アイヌ民族文化センター 2019).

비슷한 시기에 긴다이치 교스케(金田一京助, 1882-1971)는 홋카이도 각지와 사할린에 걸쳐 아이누어를 조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채록, 연구하였다. 그의 제자인 구보데라 이쓰히코(久保寺逸彦, 1902-1971)와 지리 마사호(知理眞志保, 1909-1961)는 특히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그것을 정리하였다. 이들의 성과는 현재까지의 연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아이누 구전문학에는 멜로디를 따라 부르듯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보다 비교적 단순하게 이야기하듯이 읊조리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 아이누 구전문학은 일반적으로는 ‘유카라’라고 한다. 유카라는 영웅서사시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는 ‘사코로베’, ‘하우키’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내용도 다양하다. 이 다양한 종류의 구별법은 각 지역에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이를 아이누어로 부르는 방식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현재, 아이누의 구전문학 중 ‘이야기’는 크게 영웅서사, 신화, 산문설화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한편, 젊을 때는 싸움도 했지만 사는 동안 사이가 좋아졌다는 부부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이 존재한다. 영웅서사는 짧은 멜로디를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곡조에 얹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야기할 때의 멜로디는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독자적인 음률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기억한 이야기라도 그 사람이 공연할 때에는 자신의 멜로디로 부르기도 한다. 이야기 도중에 후렴구 같은 것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앉은 자리 주변을 두들기면서 박자를 맞춘다. 이야기 내용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여행하거나, 땅속을 파고 다니는 등의 초월적인 힘을 가진 주인공 소년이 자신의 태생과 모험, 연해, 싸움 등의 체험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형태⁶⁾로 이루어진다(北海道博物館アイヌ民族文化センター 2019, 10-11).

6)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요약] 나는 아주머니 손에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우리집 가보를 두는 곳, 침대의 베개 아래 수사슴이 서 있는 것과 다름없는 사슴뿔이 달린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잠도 자지 않고 지켜주던 아주머니가 어느 날 졸려서 건넬 수 없었는지 잠이 들

신화 역시 짧은 멜로디를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멜로디에 붙이면서 이야기한다.

신화는 각각의 이야기마다 대략 정해진 멜로디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정해진 후렴이 반복되어 삽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말은 각각의 이야기에 따라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여우가 스스로 이야기한 노래(狐が自ら歌った謡)”의 경우 ‘토와토와토’라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올빼미 신이 스스로 이야기한 노래(梟の神が自ら歌った謡)”의 경우 ‘콩쿠와’라는 후렴구가 반복된다. 의미 없이 장단을 맞추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미가 담긴 구절이 반복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올빼미 신이 스스로 이야기한 노래”라는 같은 제목의 다른 신요에서는 ‘은구슬이 후두둑 후두둑(銀の滴降る降るまわりに, 아이누 원어의 로마자 표기는 Shirokanipe ranran pishkan)’이라는 후렴구가 반복된다. 다만 같은 내용이라도 지역이나 전달자에 따라 조금씩 그 후렴구가 달라지기도 한다. 하나의 이야기가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 이상 반복되는 것도 있다. 신화의 내용은, 동물이나

어 버리자, 나는 그 옷 속에 몸을 넣고 사슴의 모습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서 신들이 노는 곳에 닿았습니다. 연못에 뛰어들어 헤엄치고 있는데, 남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중에 커다란 남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나를 발견하고, ‘사슴이다, 썩!’ 하고 활을 쏘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뿔로 다 받아서 한 발도 몸에 맞지 않았기에 뿔을 흔들며 다가가지, 남자들은 도망쳤습니다. 커다란 남자는 마주서서 다가왔지만 뿔로 받아올려 연못에 거꾸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아주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옷을 벗고 원래부터 자고 있었던 것처럼 잠을 잤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뜨자 다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가 연못이 빠뜨린 커다란 남자를 나쁜 힘을 가진 여자가 구해 남편으로 삼고 함께 나를 처부수기 위해 의논했는데, 작은 새들이 소문을 내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아주머니는 전처럼 잠이 들었고, 나는 사슴의 모습으로 조용히 밖으로 나와 그 남자와 나쁜 여자가 있는 나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집이 있었고 안에는 모두가 모였는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무리와 전쟁이 나서 싸우고 있는데 구름을 탄 번개처럼 소리를 내는 자가 있어 바라보니 그것은 나를 길러준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나에게 아무 말 없이 나갈 수가 있느냐? 내가 왔으니 걱정 하지 말거라.’라고 말하고 상대를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돌이 싸워 녀석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커다란 남자와 나쁜 여자가 손에 손을 잡고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 나쁜 녀석만 있는 나라에서도 전쟁을 해서 이겼고, 그랬더니 또 남자와 여자가 도망갔기 때문에..., 계속 싸우며 쫓아갔더니 이윽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세상 끝에 닿았습니다. 거기에서 상대편 두 사람과 싸움이 나서, 격렬하고 격렬하게 싸운 끝에 나는 커다란 남자를, 아주머니는 나쁜 여자를 쓰러뜨렸습니다. 전쟁도 끝난 지금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北海道教育委員會生涯學習部文化課 1998).

식물의 신, 번개나 역병의 신 등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체험하며 겪은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地理幸惠 編譯 2018).⁷⁾ 특히, 앞에서 언급한 “울

7) 다음에 소개하는 신요는 지리 유키에의 번역으로 기록된 『아이누 신요』에 수록되어 있는 신화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인간 세상의 빈부 차이와 그에 따른 모순을 파헤친 날카로운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은구슬이 후두둑 후두둑, 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사람의 마을 위를 지나며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옛날 가난한 자가 지금은 부자가 되었고 옛날 부자가 지금은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모양새였다. 바닷가에 사람의 아이들이 장난감 활에 장난감 화살을 당기며 놀고 있는 거야. 은구슬이 후두둑 후두둑, 금구슬이 후두둑 후두둑, 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 머리 위를 통과하니 내 그림자를 쫓아오면서 말하기를: 아름다운 새! 신의 새! 자, 화살을 쏘아 저 새, 신의 새를 맞춘 사람은 가장 앞서 잡은 사람은, 진정한 용자, 정말로 강자라지 하고 말하면서, 옛날에 가난했다 지금은 부자 된 집의 아이들은 금빛 작은 화살을 금빛 활시위에 메겨 나를 쏘았고 나는 금빛 작은 화살을 오르락내리락 피하면서 보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보통의 작은 활에 보통의 화살을 메겼다. 내가 그 모양을 보자니, 가난한 집 아이라는 걸 걸친 옷으로도 알겠는 것이다. 하지만 눈동자 안쪽까지 유심히 보니 귀한 사람의 자손인 듯하고 혼자만 다른 모습으로 있었지. 그 아이도 보통의 활에 보통의 화살을 메겨 나를 쏘니까 옛날 가난했다가 지금은 부자된 집 아이들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저런 저런 가난한 집 아이야. 저 새, 신의 새는 우리들의 금 화살로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을 너같이 가난한 아이의 그저그런 화살 썩은 나무 화살을 저 새 신의 새가 잘도 잘도 잡히겠구나. (중략) 가난한 자의 아이는 한쪽 발을 쭈욱 빼고 서서 한쪽 발은 앞으로 내밀고 입술을 꼭 다물고 이를 악문 채 나를 노려보다 풍-하고 쏘았다. 작은 화살은 풍-하고 날아와 아름다운 빛을 쏘았지. 그것을 보고 나는 손을 뻗어 그 작은 활을 잡았지. 빙글빙글 돌며 내려가서는 나는 바람을 가르며 춤을 추며 떨어졌다. (중략) 가난한 집의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래바람을 날리며 달려와서 작은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아이는 창문으로 나를 넣고서 말을 덧붙여 여차저차 여차저차 이야기를 했다. 집 안에서 노부부가 손으로 빛을 가리며 두리번, 두리번 나와서 보는데 정말로 가난한 자의 차림새이긴 해도 부자다운 기품 귀부인다운 가품을 갖추고 있어 나를 보고 허리를 굽히며 놀랐다. 노인은 옷매무새를 고치며 나에게 절을 했다. 올빼미 신이시여 가난하고 누추한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부자 중에서도 손꼽히던 자였사오니, 지금은 이런 꼴로 볼품없는 가난뱅이가 되어 마을의 신, 큰 신령님을 모시기에 송구하옵니다만 오늘 이렇게 날이 저물었으니 오늘은 큰 신령님께서 묵어 가시고 내일은 그저 물고기 뿐일지라도 대접하여 큰 신령님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내 영혼은 내 귀와 귀 사이에 앉아있다가 이윽고 한밤중이 되자 일어나 앉았다. 은구슬 후두둑 후두둑, 금구슬 후두둑 후두둑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고운 소리를 내며 날았다. 내가 날개를 퍼덕이니 (중략) 깜짝할 새 이 작은 집을 멧진 보물 신의 보물로 가득 채웠어. -중략- 운이 나빠 가난해져서 옛날에 가난했다 지금은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시달리는 모습을 내가 보았으니 불민하게 여겨 나는 신분이 낮은 보통의 신이 아닐지나 인간의 집에 머물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렸다. 그 일이 끝나고 조금 지나 새벽이 열리자 집 안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략) 노인은 두 번 세 번 눈물을 흘리더니만 이윽고 노인

삐미 신이 스스로 이야기한 노래(梟の神が自ら歌った謠)—콩쿠와” 편은 인간이 자연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산문 설화는 일상 회화에 가까운 어조, 혹은 그보다 좀 더 단순한 어조로, 때로는 점점 더 크게 억양을 붙이면서 진행되기도 한다. 이야기에는 10분 전후로 구술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몇 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의 내용은 주인공도 이야기의 즐거기도 다양하고 풍부하다. 인간이 주인공이며, 자신이 체험한 일이나 신과의 만남 등을 이야기하는 것, 신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내용으로서는 신요에 가까우나 영웅서사시처럼 인간에게는 없는 힘을 가진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거나 위기에 빠지면서도 마지막에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나쁜 사람이나 나쁜 신은 징벌을 받는다는 형태로, 사회적인 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많다.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나 직접 조상이 겪은 일들도 산문설화로 전해진다(上田トシ 1997).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누 민족의 언어문화는 1인칭 시점에서 구술되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언제나 ‘현재’의 1인칭 시점에서 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공연이 이루어진다. 이는 청자, 특히 후세대를 신요 커뮤니티 안으로 끌어들이는 의미에서 사상적 ‘지속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특징은 구전문학이라는 특성과 맞물려 있으며, 인류사적 차원에서도 보존 가치가 높은 언어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소수민족인 아이누 민족의 신화들은 선인들의 지혜를 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V. 아이누 신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누 신화 속에서 현대 사회가 세계 공통

이 일어나 내 곁으로 와서 이십 번 삼십 번 거듭 절을 하고 (중략) 우리들의 누추한 집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늘 마을의 신이시여 대신령님이시여, 저희들의 불행을 가엾게 여기시어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끼이끼이 울면서 절을 하더라. (후략)

으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올빼미 신이 스스로 이야기한 노래(梟の神が自ら歌った謡)-콩쿠와” 편에는 아이누 서사에서 가장 높은 신인 올빼미가 천국으로 보낼 사자를 찾는다. 이유는 인간 세상의 기아에 대하여 답판을 짓고 올 심부름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신요의 일부를 옮겨보겠다. 본고의 모든 인용문은 지리 유키에의 『아이누 신요』를 필자가 번역한 것이며 인용된 시는 원문의 박자대로 행이 바뀐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 답판의 내용이란, 인간 세계에
기아가 만연하여 인간들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어떤 일인가
하고 보니 천국에
사슴을 관리하는 신과 물고기를 담당하는 신이
서로 의논하여 사슴도 내어놓지 않고 물고기도 내어놓지 않기로
작당했기 때문에, 신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도 나 몰라라 하는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냥하러
산에 가더라도 사슴도 없고 물고기 잡으러
강에 가더라도 물고기도 없네.
나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사슴의 신, 물고기의 신에게 사자를 보냈던 것이다.

(地理幸惠 2018, 99-101)

‘기아가 만연하여 인간들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현상, ‘사슴을 관리하는 신’과 ‘물고기를 관리하는 신’이 서로 의논하여 사슴도 물고기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상황은 현재의 세계적 식량 위기를 설명한 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산을 대표하는 동물로서 사슴이, 강을 대표하는 동물로서 ‘물고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인간의 입장에서 화가 난 올빼미 신은 사슴의 신과 물고기 신에게 사자를 보낸다. 이 신요의 내용은 인간에게 내리는 위기와 재앙이 인간이 만든 순환 고리 안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신요의 후반부에서는 며칠이 지나 심부름 떠난 물까치가 돌아온다. 물까치는 전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용맹한 기품을 갖추고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천국의 사슴 신과 물고기의 신이
 지금까지 사슴을 내어놓지 않고 물고기를 내어주지 않았던
 이유는, 인간들이 사슴을 잡을 때
나무로 사슴의 머리를 두들기고, 가죽을 벗기더니
사슴 머리를 그대로 산의 나무 밑에
버려두고, 물고기를 잡으면
썩은 나무로 물고기의 머리를 두들겨 죽이므로
사슴들은 맨몸으로 올면서
사슴 신의 품으로 돌아오고, 물고기들은
썩은 나무를 물고 물고기 신의
품으로 돌아온다. 사슴 신, 물고기 신은
 화가 나서 의논을 했고, 사슴을 내어주지 않고
 물고기를 내어놓지 않았던 것이다. 나중에
 인간들이 사슴도 물고기도
 정중히 다루겠다고 약속하면 사슴도 내고
 물고기도 내어 줄 것이라고, 사슴 신과
 물고기 신이 말했다는 것을 자세히 전하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물까치에게
 칭찬을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정말로
 인간들은 사슴과 물고기를
 막 다루었던 것이다.

(地理幸惠 2018, 101-103)

신요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식량 위기의 이유는 인간들에게 있다. 인간들이 사슴을 잡을 때 나무로 사슴의 머리를 두들기고 가죽을 벗겼으며, 물고기를 잡을 때도 썩은 나무로 두들겼다고 표현되어 있다. 그런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생명에 대한 태도가 인간에게 재앙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책임있는’ 자원의 이용을 촉구하며, 동시에 ‘인간

중심'의 '지속'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모든 생명의 평등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젠다 21』의 사상을 뛰어넘는 측면이 있다.

아이누는 모든 생물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인간도 모든 생물의 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인간과 산, 인간과 강, 모든 자연을 '지배'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인간들이 신의 뜻대로 물고기를 잡는 도구도 아름답게 하고, 사슴의 머리도 깨끗이 장식하여 기리자, 그들이 기분 좋게 하느로 갔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인류의 '책임'과 '평등'의 의미를 확대시켜 생각하게 한다.

한편, “작은 오키키리무이가 스스로 노래한 곡-이 모래는 빨개, 빨개(小オキキリムイが自ら歌った謡)-この砂赤い赤い』 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작은 오키키리무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악마의 아이’를 만났다. 악마의 아이는 작은 오키키리무이에게 놀자며 말을 건다. ‘악마의 아이’는 처음에 강의 상류에 화살을 쏘면서 물을 흐리게 했다. 그것이 싫었던 물고기들이 도망갔다. 그것을 보며 ‘악마의 아이’는 기뻐했다. 그러나 ‘작은 오키키리무이’가 강 상류에 은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물은 처음처럼 깨끗한 물로 돌아왔다. 그러자 도망갔던 물고기들이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본 ‘악마의 아이’는 간질을 일으키고 이번에는 ‘사슴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 화살을 쏘았다. 그러자 사슴이 없어졌다. 그러나 ‘작은 오키키리무이’가 은화살을 쏘자 사슴들이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본 ‘악마의 아이’는 간질을 일으키고 결국 힘겨루기를 신청하지만 결국 작은 오키키리무이에게 패배하여 지옥으로 보내진다.

작은 오키키리무이, 놀자.
그러면 이제부터, 물고기의 부리를 뽑아 주겠다.
하고 말하고, 호두나무 활에 호두나무 화살을
매겨 수원을 향해 쏘자
수원으로부터 호두의 물, 탁한 물이
흘러나와, 연어들이 위로 올라왔다가
호두 물이 싫다고 울면서
되돌아 떠내려갔다. 악마의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방긋방긋 웃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화가 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은 활에 은 화살을
메겨 수원을 향해 활을 쏘았는데
수원에서 은 물, 파란 물이
흘러나오고 울면서 돌아갔던
언어들은 푸른 물에 기운이 나서
크게 웃으며 신나게 놀면서
파닥파닥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자, 악마의 아이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地理幸惠 2018, 139-141)

이 신화들의 공통점은 ‘기아의 종식’, ‘깨끗한 물과 위생’ 등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직접적으로 구현해 낸 듯하다. 인간의 무분별한 포획이나 개발로 인해 물과 위생이 위협받고, 그와 관련하여 기아가 찾아온다는 이 신화의 내용은 최근 지구의 모습을 예견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누 민족의 전통적 세계관은 분명히 현재뿐 아니라 근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경고하는 동시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앞서 소개한 (각주 7번 참조) ‘은구슬이 후두둑 후두둑’은 ‘빈곤의 종식’과 ‘불평등 완화’를 노래한다. 이러한 세계관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된다.

또한, 신화에 나타나는 아이누의 세계관은 과거와 미래, 세대와 세대가 하나의 순환적 관계 속에 존재한다. 물을 흐려 놓으면 물고기가 못 살고, 그러면 다음 세대에 물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사상이 아이누 신화 속에는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V. 아이누의 일상에서 떨어진 전통

미야자키 마사카쓰(宮崎正勝)는 아이누의 전통지식과 세계관이 지속가능성에 공헌할 수 있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그들의 생활양식에

높은 지구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동식물을 소량만 포획하고 잉여농산물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생활적 기술을 몸에 익히고 있다. 둘째, 그들의 자연관이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서양적 가치관과 달리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 자체도 자연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진다. 그리고 지리적인 표상인 산과 강, 물, 불 등에도 혼이 담겼다고 느껴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모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셋째, 그들이 전승해 온 유카라를 위시로 하는 구전 문예에는 아이누의 과거와 미래, 세대 간, 집단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청자와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해 왔고, 동시에 사고력, 상상력을 키우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제공한다(宮崎正勝 1996).

<사진 1> 연어껍질로 만든 옷



<사진 2> 연어껍질로 만든 신발



그러나 한편, 현실적으로 아이누의 문화에 대한 지원은 ‘전통’에만 국한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이누 민족의 의생활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 크게 변화하였고, 점차 일본 옷, 양복을 입는 일이 많아졌다. 아이누의 전통 의복은 박물관과 문화체험관에서만 볼 수 있다.

사진은 2019년 10월 18일, 필자가 ‘피리카 코탄’을 방문했을 때 찍은 것이다. <사진 1>은 연어껍질로 만든 옷이고, <사진 2>는 연어껍질로 만든 신

밭이다. 학예사 다케우치 씨에 따르면, 옷을 만드는 데는 연어 60-70마리, 신발을 만드는 데는 4마리의 가죽이 필요하다. 주로 가을에 연어가 귀환할 때 만들어 두었다가 신는데, 쉽게 상하기도 해서 착용 가능 기간은 불과 6개월이며, 신발의 경우 밖에 벗어 두면 개가 먹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질 좋은 옷감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현대에는 아이누 민족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으로 이런 의복을 입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박물관의 진열품과 다름없는 아이누 전통문화는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아이누 문화 정책은 『아젠다21』을 크게 수용하고 있으며, 『아젠다21』에서 ‘선주민의 가치, 전통적 지식 및 자원운영, 관습 등을 존중’해야 하고 ‘재생가능 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 직접적 의존이 선주민에게 여전히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선주민’에 대한 지원을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 직접적 의존’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연과 함께 살던 문화라는 기억만이 선택되고 강조되면서 아이누 문화에 담겨진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자립에 관한 문제는 시야 밖으로 물러났고, 다문화 공생이라는 논리 속에서 아이누 문화는 다양한 ‘일본 문화’의 일부로서 포섭되었다.

UN이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내용과 아이누 신화는 놀라울 만큼 일치하며, ‘빈곤의 종식’, ‘기아의 종식’, ‘깨끗한 물과 환경’, ‘기후행동’, ‘정의’, ‘평화’, ‘문화다양성’ 등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제시된 지속가능성의 가치는 사실 아이누 민족의 입장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서구 중심의 국가연합이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저탄소 운동을 보더라도, 사실상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것은 누구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매우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1997년 아이누 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아이누 민족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문화를 중심으로 진흥정책이 실시되었다. ‘동질성의 신화’라는 거대사회 담론을 무너뜨린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아이누 문화진흥법의 제정 이후, 아이누 민족 문화의 재해석을 통해 아이누 민족의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는 근대 이후 ‘단일민족론’을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소수민족은 없다’는 입장을 수정한 것이지만, 강제 동화의 역사에 대한 사과도 없었

고 정치적 권리가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아이누 민족이 일본에 소속될 것인가 독립될 것인가, 토지의 배상이나 반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자기 결정권 문제 등은 아이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었다(조아라 2008, 1-14).

아이누 민족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소수민족 문화가 관광 상품화되는 현실 속에는 소수민족을 향하여 ‘영원히 자연 친화적’으로 살라는 무언의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현재의 아이누 민족은 일상생활에서 일본인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욕망 역시 여타 민족의 그것과 같다.

또한, 소수민족 개개인이 아니라 지원단체와 유지단체가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 지속가능성이란 결국 하나의 거대 시스템의 제어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VI. 결론을 대신하여: 아이누의 전통지식과 세계관, 지속가능성과 과제

본고에서는 UN이 제시한 ‘지속가능성’과 아이누 신화의 세계관을 비교 고찰하고, 한편으로 그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수용한 일본의 아이누 정책이 현실적으로 아이누 민족의 문화를 ‘과거’에 가두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은구슬이 후두둑 후두둑”, “올빼미 신이 스스로 이야기한 노래—콩쿠와”, “작은 오키키리무이가 스스로 노래한 곡—이 모래는 빨개 빨개” 등의 아이누 신요는 인간에게 닥친 위기와 재앙이 인간이 만든 순환구조 안에 있음을 시사하며, ‘불평등 완화’, ‘빈곤의 종식’, ‘기아의 종식’, ‘깨끗한 물과 위생’을 서사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UN이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할 뿐 아니라, ‘인간 중심’의 ‘지속’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모든 생명의 평등권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아젠다 21』을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신요의 형식이 1인칭이라는 점도 과거와 미래, 세대와 세대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이누 문화는 ‘과거’로서 박제된 측면이 있다. 과거의 문화,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으나, 그 지속가능성이 포함하고 있는 위선의 문제는 반드시 본격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일본제국의 동화정책처럼 한 민족의 문화를 일거에 소거하려는 폭력적인 역사는 당연히 비판받고 없어져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언어와 의복, 주거환경을 보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은 그들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그것을 진정한 ‘지속’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의 허구를 진지하게 언급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지속가능성의 시작일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조아라 (2001). “아이누 민족문화 관광실천의 공간정치: 홋카이도 시라오이의 경험.” 『국토지리학회지』. Vol. 45. No. 4, pp. 107-124.
- _____ (2008). “일본의 아이누 문화정책과 소수민족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 『문화역사지리』. Vol. 20. No. 3. pp. 1-14.
- Berkes, F. (1993).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in Perspective.”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Concepts and Cases*. International Program on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Canadian Museum of Nature, pp. 1-9.
- 宮崎正勝 (1996). “歴史教育における環境主題導入の試み：アイヌの自然観と縄文文化の再評価.” 『環境教育』. Vol. 6. No. 1, pp. 16-26.
- 島津礼子 (2017). “先住民の知識、自然観と持続可能性.” 『広島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紀要』. 広島: 広島大学, pp. 69-77.
- 北海道教育委員会生涯学習部文化課 (1998). 『アイヌ民俗文化財 口承文芸シリーズ 八重九郎の伝承(6)』. 札幌: 北海道教育廳.
- 北海道博物館アイヌ民族文化センター (2019). 『ポンカンピソシ6』. 札幌: 北海道博物館.
- 上田トシ (1997). 『アイヌ民族博物館 伝承記録3・昔話』. 札幌: アイヌ民俗博物館.
- 地理幸恵 扁譯 (2018). 『アイヌ神謡』. 東京: 岩波文庫.

2. 기타

- Intetnaitonal Labor Office (1989). *Understanding the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Geneva: ILO.
- 유엔개발계획 (UNDP). https://www.undp.org/sustainable-development-goals?utm_source=EN&utm_medium=GSR&utm_content=US_UNDP_PaidSearch_Brand_English&utm_campaign=CENTRAL&c_src=CENTRAL&c_src2=GSR&gclid=Cj0KCQiAi9mPBhCJARIsAHchl1wNYWY-6YxQnL7vFL1q_pXOGftWz6DNF46eDgbLHgBW9XrcIN8p92MaAoy8EALw_wcB. (2022년 1월 31일 검색)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Recognizing & Strengthening the

Role of Indigenous People & Their Communities.” 『Earth Summit Agenda 21』. https://www.un.org/esa/dsd/agenda21/res_agenda21_00.shtml. (2022년 1월 31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22년 05월 10일 |

| 논문심사일 : 2022년 05월 20일 |

| 게재 확정일 : 2022년 06월 13일 |

| ABSTRACT |

Ainu Mythology and Today's Sustainability Paradigm

Seok-hee Kim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The United Nations' sustainability ideas and the Ainu's worldview surprisingly coincide. It is not difficult to find ideas like the end of poverty, end of starvation, clean water, clean environment, climate action, justice, peace, and cultural diversity in the Ainu's orally handed-down mythology. Still, the value of sustainability suggested today was actually not suggested from the Ainu's perspective, but by the United Nations and their Western-oriented way of thinking. Chapter 26 of Agenda 21 (a non-binding action plan of the United Nations with regard to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mentions the support for indigenous people under the premise of "traditional and direct dependence on renewable resources and ecosystems." In 1997, the Law for the Promotion of the Ainu Culture and for the Dissemination and Advocacy for the Traditions of the Ainu and the Ainu Culture was enacted in Japan. Considered a revolutionary event by many, it basically tore down the myth of Japanese homogeneity. From that point forward, the Ainu people were officially recognized by the Japanese state and a policy was undertaken to promote Ainu Culture. And yet the policy had limitations i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pologize for its role in the Ainu's forced assimilation and that the Ainu people's political rights were excluded in the execution of the policy. In fact, this policy started in very limited ways by pigeonholing Ainu people's culture to nothing more than a "tradition." While only the memory of their culture of living with nature was chosen to be

emphasiz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 issues in Ainu culture were not properly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banner of promoting a multicultural symbiosis, Ainu culture was integrated into the diverse “cultures of Japan.” It certainly has meaningful value to preserve the Ainu culture of the past as well as the value of an ethnic minority. However, the political issue that is included in its sustainability should be more closely examined.

- Key words: SDGs, Ainu Mythology, Indigenous People, Traditional Knowledge, Ethnic Minority